

# 鄭·金 탈당 시사... 우리당 와해 위기

〈동영〉 〈근대〉

열린우리당 내 대선주자인 정동영, 김근대 전 의장이 이달 중 탈당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우리당의 와해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양대 계파의 수장이기도 한 두 사람이 당적을 정리할 경우 최소 30명 이상의 의원들이 집단으로 탈당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 108석인 열린우리당은 친노그룹과 중도파, 비례대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70석 안팎의 정당으로 축소될 수도 있다.

또 중장기적으로 범여권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통합신당모임, 민생정치모임과 정동영 그룹, 김근대 그룹 등으로 일단 분화된 뒤 통합에 동의하는 세력 간에 협상을 거쳐 다시 융합을 추진하는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더욱이 우리당 내 친노그룹이 "나갈 사람은 말만 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며 "통합이 안 되면 우리당 중심으로 가자"며 당 중심론을 전면에 내걸어 내분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정동영 전 의장은 3일 "통합신당을 주창한 사람 입장에서 선관위에 우리당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당 경선 관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며 우리당 경선 불참 입장을 확인한 뒤,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결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또 "(탈당은) 통합으로 가는 절차적 의미라고 본다"면서 "우리당 지도부가 5월 말 이전에 통합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정치적 해산을 선언하는 것도 질서있게 하는 한 방법일 수 있다"며 이날 우리당 정세군 의장을 만나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근대 전 의장도 이날 긴급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마지막 기득권 포기인 당 해체를 통해 평화 개혁신력 대통합의 장어가 제거됐다"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우리당을 해체하고 민주당 당도 허물어야 하며 민주노동당도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역사적 성찰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당 해체와 대통합을 위해 적극 역할을 할 것임을 밝혔다.



김근대, 정동영 전 의장의 탈당 시사 발언으로 열린우리당이 분열 위기에 몰린 가운데 장영달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5월은 대통합의 기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鄭 “필요하면 결단” 金 “이달말 당적 결정” 범여권 5~6개 그룹으로 세분화 가능성

김 전 의장은 "전당대회 결의대로 6월 중순까지 대통합을 이루려면 5월 말까지 가시적 성과가 있어야 한다. 지금은 기득권 포기에 대한 결단이 중요하며 당적 문제는 그때 가서 결정할 수 있다"며 이달 말 탈당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대해 우리당 지도부는 당내 해체론과 탈당 움직임에 강력히 비판하는 한편, 정세군 의장이 지난 2일 정동영 전 의장과 한명숙 총리를 만났고 조만간 김근대 전 의장과 면담하기로 하는 등 당의 와해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장영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소속 정당의 정당정책이 그대로 있고 본인이 변하지도 않았는데 탈당을 밥 먹듯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며 "당을 모함함으로써 자기 살 길을 모색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당을 떠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당내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처음처럼'은 이날 성명을 통해 당 지도부와 민주당, 대권후보군, 시민사회세력에 제3차 대항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민주당과 통합신당모임을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탈당파·孫이 왜 여권이냐”

### 靑, 정치권·언론 등에 시정 요청

#### “연대·협력 않는 非한나라 세력”

청와대는 3일 정치권과 언론이 한나라당을 제외한 제정당과 정치인들을 통칭해 '범여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와대 정부팀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최근 정치권과 언론은 열린우리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우리당 탈당세력, 심지어는 손학규 전 지사까지도 '범여권'이라고 부르고, 가만 보면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을 '범여권'으로 부르는 것 같다"며 "근거도 없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구분"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여당과 여당을 지지하는 세력 안에 드는 사람이나 단체'가 '여권'이라는 정의를 토대로 ▲대통령(정부)과 국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하거나 그럴 용의가 있고 ▲공동의 목표를 위한 목적의식적 연대 혹은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인사나 정치세력을 '범여권'으로 규정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민주당, 국민중심당, 심지어는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인사까지 어쨌든 '범여권'이라 일컫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언제 그 분들이 정부와 연대를 한 일이 있거나 국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한 일 있거나, 하려고 하느냐.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은 '국정에 대한 심판'을 주장하는 명백한 야당"이라고 했다.

특히 청와대는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을 지목, "한나라당 주도의 이른바 '야권공조'에 참여하거나 한나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침묵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청와대는 또 우리당 탈당파와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과 결별을 선언하고 우리당을 탈당한 세력이나 정권교체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탈당정치인까지 범여권이라 부르는 것은 더 잘못됐



와이셔츠 차림 노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집무실에서 문재인 비서실장과 와이셔츠 차림으로 정국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면서 "정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용어선택"이라고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한나라 지지도 30%대 급락

### 2명중 한명 “한나라 쪼개지고 이명박 탈당할 것”

#### YTN·글로벌 리서치 공동조사

4·25 재·보선에서 참패한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30%대까지 급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우리 국민 2명 중 한 명은 '한나라당이 분당할 것'이고, 분당한다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탈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YTN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와 공동 조사해 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달 20일 조사 때의 48.3%보다 9%포인트 하락한 39.3%에 머물렀다.

#### 또 최근 한나라당 내용 포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분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9%가 '가능성이 있다(매우+어느 정도)'는 견해를 보였다. 이에 비해 '가능성 없다(별로+전혀)'는 견해는 34.6%로, 국민은 한나라당의 분당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만일 오늘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다음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 결과, 1위인 한나라당 이명박 전 시장은 34.7%를 얻어 지난 4월 18일 조사에 비해 0.6%포인트 올랐다. 2위인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는 21.5%로 지난 조사보다 0.6%포인트 떨어졌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4.7%로 3위를, 정동영 전 의장(2.5%), 노회찬 의원(2.4%), 한명숙 전 총리(2.0%), 강금실 전 장관(1.9%), 김근대 전 의장(0.5%) 등이 뒤를 이었다. 범여권 대선후보 선호도에선 손학규 전 지사가 22.9%로 여전히 1위를 달렸다. 정동영 전 의장이 7.1%로 뒤를 이었고, 강금실 전 장관(6.4%), 한명숙 전 총리(6.2%) 순이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통합신당, 단일성 지도체제 가닥

### “대표 최고위원 권한 강화로 통합 가속화”

열린우리당 탈당그룹인 통합신당모임은 3일 오전 전원회의를 열어 '중도개혁통합신당'의 지도체제를 신당모임과 시민사회세력에 한 명씩의 대표를 내세우는 공동대표 체제로 정했다.

신당모임은 또 모임소속 의원들과 시민사회인사들이 고루 참여하는 최고위원회를 구성하며, 공동대표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운영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당모임의 핵심 관계자는 "새로운 신당은 완결성을 지닌 정당이라고보다는 주류 대통합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가교 정당의 성격을 갖는다"며 "통합

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대표 최고위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당모임은 이에 따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당의 운영을 분할하는 '양날개 체제'가 아니라 당 대표가 실질적 지도권한을 확보하는 '원톱체제'로 가고 의결기구인 중앙상무위원회의 권한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대표와 관련, 3선의 김한길 의원과 시민사회 진영에 속한 송일 외국어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대선 예비후보 30명

### 군소후보 난립 양상

연말 17대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대선 예비후보가 벌써 30명에 달하는 등 극심한 군소후보 난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3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달 23일 이후 군소후보들이 꾸준히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려 접수 열흘째인 2일 현재 30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끝마쳤다.

예비후보 중 당적을 가진 인사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노회찬 의원 등 2명과 한나라당 서상복 후보, 열린우리당 허경영 조계태 우동철 후보, 시민당 최용기 후보 등 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23명은 모두 무소속이다. /연합뉴스

면학분위기 가장 좋은 학원 / 1교수 1과목 전문강사진 / 주말보강없이 2개월 책임 완성

# 9월 9일 경찰 시험대비 합격특강

전/의경 폐지확정      2008년부터 채용규모 5,000명 이상 증원(예상)      지금이 기회!      개강 6월 1일

3월 18일 제1차 필기합격생 153명 배출 [면접특강: 5월 12일(토) 16시(현직전문가)]

## 광주서울경찰전문학원

북구청 맞은편 (062) 251-7959

## 태양광 발전 사업의 선두기업

태양광발전사업 토달 컨설팅  
- 태양광 발전 사업 신청 및 허가대행  
- 책임시공사 선정  
- 자금컨설팅  
- 태양광발전 사업비 펀드 조성 컨설팅  
- 태양광 발전 시공 전문기업

※ 태양광발전 부지 매입 및 임대상담 환영

■ 협력사: ㈜대림솔라, ㈜선앤리, 앤알솔루션㈜

한반도 솔라텍(주) www.hbsola.com T.(062)524-0321, 8550, 8558 F.062-525-5689

● 화순 북면 3MW 태양광발전 테마파크 1차 1MW 5월 착공 ●

사원 모집  
● 경영컨설턴트  
- 경영지도사자격증소지자  
- 금융권 근무경력자  
● 전기기사  
- 전기기사자격증소지자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 전형방법  
- e-mail : hbsola@naver.com  
● 서류심사후 개별통지

#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노동부 인정 직업능력훈련기관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합격률 1위 전국수석 배출

## 6월 1일 첫진도 개강

고용보험재직근로자 수강료 환급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원출신 143명 합격!

##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      첨단점 ☎ 971-0002 (빅마트 첨단점 옆 광주은행 4F)

#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 배출 13, 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학원

◇ "서울" 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 상륙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 25개 학원 체인)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 TV방송 출연 교수진 / 저자직강 ★

개강 5월 1일 첫진도 시작반 (주간반, 야간반) · 재직자 무료 수강생 야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 1위! 새롬행정고시학원 ☎ 361-8111 서구청앞 (농성동)